

Market Index / 14일

코스피지수 ▲ 2081.84 (+2.83) | 코스닥지수 ▲ 710.16 (+1.36) | 유가(WTI, 달러) ▼ 61.04 (-0.62) | 환율(원) 1USD 1208.28 (100¥ 1101.08) | 실매 1166.72 (팔매 1063.22) | 1EUR 1361.61 (1CN¥ 180.77) | 실매 1308.49 (팔매 163.57)

‘1년간’ 단서 달고 제주 대기업면세점 수 유지

기재부 “올해는 불허... 내년 요건 충족시 긍정 검토”
이미 신라·롯데 면세점 매출액 전년 比 36·58% 성장

정부가 앞으로 1년 간은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내 면세시장 이익을 롯데와 신라가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기업의 추가 허용을 반대한다는 제주도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1년 간’이란 단서를 둔 점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제3의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이호승 기재부 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제주 지역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제주 지역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 받을 요건을 충족하지만 앞서 제시한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지자체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증가한 지자체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게 특히 요건을 완화했다. 제주지역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은 전년 대비 5800억원 증가한 매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재부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필요한지 판단해 그 의견을 제출해달라’로 취지로 보낸 공문에 제주도가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이를 기재부가 수용하면서 당분간 신라와 롯데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시내면세점은 제주에 들어설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결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못 박았다. 기재부는 올해에는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 허용하지 않겠지만 1년 더 도내 면세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그 때에도 제주가 요건을 충족한다



이호승 기재부 차관이 14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면 신규 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대로라면 내년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가 나갈 가능성은 더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국회의원의 질문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호텔신라 신제주 면세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성장한 2629억원을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58% 늘어난 24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추세대로라면 두 대

기업 시내면세점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내년도도 제주 지역 신규 특허 허용 기준 중 매출액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만약 내년에 신규 특허가 나간다면 롯데와 신라와 함께 면세업계의 ‘빅 3’로 꼽히는 신세계가 제주 진출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미 도내 면세시장에는 신세계가 제주지역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분양경기 ‘황보’ 지속... 체감도 흐림

5월 HSSI 전망치 전달 비해 ↑

제주지역 분양경기는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황보형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대전(95.8), 세종(95.6), 대구(90.3) 등 일부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국지적으로 분양시장에 대해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가 이뤄진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전국 HSSI 전망치

는 77.2를 기록했다. 4월보다 7.8%p 올라간 수치인 동시에, 2018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망치가 여전히 기준선(100)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어서 시장의 분양 여건이 호전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73.6으로 4월 72.2에 비해 1.4p 상승했다. 3월 전망치(60.0)에 비해 12.2p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회복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4월 실적치는 60.0으로 3월 실적치(66.6)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72.7에서 55.5에서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전망이 어두운 반면 중견업체는 71.4에서 90.0으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4월 분양시장에 대한 체감경기집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은 +12.2로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농민·소비자 만나는 직거래 장터 개장

‘All바른농부장’ 옛 목석원 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내 농가들이 당일 수확한 채소와 과일, 버섯, 가공품 등 제철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All바른농부장’이 오는 18일 제주시 아라동 옛 목석원 부지에서 처음 문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All바른농부장’은 오는 10월까지 매일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장하는 등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All바른농부장’에는 30여개의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지원을 받아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을 받은 가족 농가 또는 여성 농업인들이다.

도내 안심한 먹거리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과 환경 보호에 뜻을 같이하는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측은 밝혔다.

‘All바른농부장’ 준비를 맡은 고광씨는 “지역의 바른 먹거리를 도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보호하는데 힘을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제주도의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농산물생산단지 조직화교육
생산농협 등 도내 4곳 선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원신)는 ‘2019 농산물전 문생산자단지 조직화교육지원사업’에 농협회사법인(주)제이제이에프, 신촌화해수출단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성산일출봉농협 등 도내 4개 수출단

지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19 조직화교육은 정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련 인적자원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가 인식개선·농가 정보화·전문기술교육·품질관리·사 레전과 등 5대 지원항목의 90%까지, 소속농가 수에 따라 단지별 최대 1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성윤기자



지난 13일 대정·안덕지역 마늘재배농가에서 일손돕기에 나선 해병9여단 장병들이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주농협 제공

올해산 제주마늘 수매가 kg당 3000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

올해 제주산 마늘 수매가격이 지난해와 동일한 kg당 3000원으로 결정됐다.

마늘제주협회의 회장 이창철 대정농협조합장은 14일 농협 제주지역

본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19년산 마늘 수매단가를 kg당(상품기준) 3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가격은 지난해 11월 결정된 사전 계약가격과 같다.

2019년산 마늘의 농협 계약물량은 7980t이며 계약가격은 1808농가이다.

계약재배물량은 9696t이었던 2018년 산에 비해 17.7% 감소한 수준이다.

제주 전체 마늘 재배면적은 2024ha로 전년에 비해 5%, 평년보다는 11%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른 생산물량은 전년보다 2% 감소되는 3만 1653t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년은 3만 6700t 정도였다.

이날 결정된 마늘수매가는 다른 지방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계약단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특히 인상에 따른 조합의 경영 어려움과 인화에 대한 농가의 불만 등을 적절히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마늘이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인 점과 도내 간마늘 가공 농협의 간마늘 가격 전망에 공감대가 형성돼 무난히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조성윤기자

“제주 최대 농번기”
농협, 인력난 해소 총력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최대 농번기인 봄철 마늘수확기를 맞아 농가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군장병, 대학생봉사단, 임직원 등 무상인력과 대한노인회 유상인력 등 연인원 7000명을 투입해 영농인력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해병9여단 장병 200여명이 지난 13일 대정·안덕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연인원 2500명이 투입돼 농촌의 일손돕기에 나섰다.

오는 17일은 제주대학교와 국제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농촌 사랑방사단’ 1200여명(연인원 3600명)이 2박3일로 자매결연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성윤기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ju Hong' featuring properties like '하귀2리', '서흥동', '유수암리', '연동1.5룸', '토산리(급매)', '와흘리', and '고산리' with contact information: 064-723-8850, 010-4692-0952.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ju Kunsilting' with contact info 726-4585, 010-8660-1263. Lists properties such as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and '포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ongbu Gongin Junggasa' with contact info 010-2800-4595, 064-747-5115. Lists properties such as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 and '※하귀택지개발내 2중주택 319㎡ 4.9억'.

Advertisement for 'City Flower' flower delivery services. Features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and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with contact info 746-0014, 010-3693-5563.